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LENS INSIGHT / No.02

산업의 가격과 이익을 연결하는 리서치

미국 태양광의 '가격 섬', 프리미엄은 누구의 몫인가

무역장벽·미국 생산·세액공제가 바꾸는
비중국 공급망의 경제성

판매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그 차액을 남기는 능력은 별개다.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발전사업을 나눠 보고,
한화솔루션·OCI홀딩스의 서로 다른 이익 경로를 분석한다.

01 / RESEARCH VIEW

비중국보다, 미국에서 남기는 이익을 본다

태양광 전체의 호황보다 생산 위치와 공급 단계에 따른 수익의 재배분이 핵심이다.

TradeLens 판단 | 미국 내 적격 통합 생산의 상대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본다

우선 관심은 미국에서 셀·모듈을 실제로 생산·판매하고, 조달 위험까지 낮출 수 있는 구조다. 해외 비중국 소재도 기회가 있지만 같은 수혜는 아니다. 높은 모듈 가격은 제조업체의 협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전사업자의 투자비를 올린다.

분석 대상	사업 방향 판단	성과를 가르는 변수
미국 통합 제조	상대적으로 우호적	실제 생산·판매, 수율, 수입 원료 의존도, 적격성
해외 비중국 소재	선별적·조건부 기회	계약 재가격, 원산지·통상 조건, 고객의 실제 구매
수입 셀 기반 조립	매출과 원가 동반 상승	고객 평가에 전가하는 속도, 기존 계약과 재고
발전 개발·운영	조달 비용과 일정 부담	PPA 조건, EPC 계약, 세제 자격, 상업운전 시점

방향 판단은 TradeLens의 산업 분석이다. 정책·제품 및 세제의 근거는 3 - 4·8·11쪽에 제시했다. [\[1\]](#) [\[2\]](#) [\[4\]](#) [\[5\]](#) [\[7\]](#)

이 보고서가 남기는 관점

미국 태양광을 하나의 테마로 묶으면 같은 가격 상승을 모든 기업의 호재로 읽게 된다. 그러나 **소재 판매자, 제조업자, 발전사업자**는 그 가격의 서로 다른 쪽에 서 있다. 생산능력보다 팔 수 있는 적격 물량, 매출 증가보다 원가·비용 이후의 차액이 중요하다.

핵심 한 문장

가격 프리미엄은 산업 전체의 보너스가 아니라, 통관·세제·납기를 충족한 공급자가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몫이다.



02 / PRICE EVIDENCE

0.38달러와 40% 상승을 같은 사실로 읽지 않는다

정책 기준가격, 플랫폼 관측값, 공급자의 추정은 서로 다른 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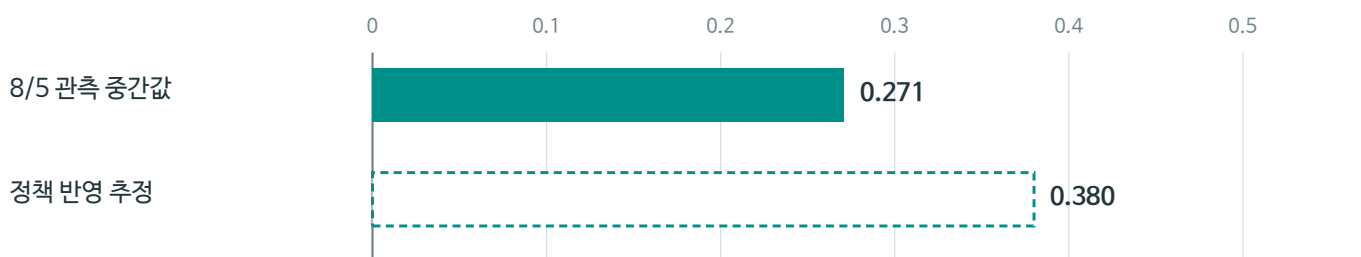
Anza는 8월 10일 보고서에서 8월 5일 플랫폼 중간가격과 새 정책을 반영한 예상 최소 조달가격을 비교했다. 약 40%라는 수치는 이 비교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 전체의 실거래가가 이미 그만큼 올랐다는 통계는 아니다. [2]

조달 유형	8/5 관측값	정책 반영 추정
수입 모듈	\$0.271/W	\$0.380/W
미국 조립 + 수입 셀	\$0.300/W	\$0.430/W
미국 셀 + 수입 웨이퍼	\$0.470/W	\$0.560 - 0.620/W

Anza의 플랫폼 중간값·조달 추정. 추정치는 수입업자가 추가 증가관세를 흡수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납기·제품·계약이 다른 범주이며 현재 실현 매출단가가 아니다. [2]

관측값과 전망을 분리한 수입 모듈 비교

단위: 달러/W · 서로 다른 성격의 값



채운 막대는 과거 관측값, 빈 테두리는 Anza 추정. 같은 0 기준의 금액 비교이며 시간에 따른 실거래가 추이를 뜻하지 않는다.

분석 | 조립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원가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모듈을 조립해도 투입 셀·웨이퍼를 수입한다면 상류 조달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완제품 판매가격의 상승보다 원료 단계에서 무엇을 직접 만들고,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하는지가 이익의 차이를 만든다.

시장 전체의 “미국 대 중국” 가격 차이는 동일 규격·납기·세제 조건의 거래끼리 비교해야 한다. 위 표로 글로벌 지역별 가격 지수를 만들지 않는다.



03 / POLICY GATES

국적 하나로 세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수입 규칙, 생산자 공제, 발전사업자 자격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8월 6일 미국 포고문은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소수입가격(MIP) 체계를 도입하고 12월 4일 시행을 예정했다.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한 정책으로, 모듈만 미국에서 조립하는 구조와 상류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1]

품목	포고문 MIP	단위
폴리실리콘	21	달러/kg
잉곳·웨이퍼	100	달러/kg
태양광 셀	0.22	달러/W
태양광 모듈	0.38	달러/W

MIP는 수입 규율의 기준값이며 기업의 보장 판매단가가 아니다. 포고문에는 신고가격·서류 조건 및 파생제품 추가 15% 종가관세가 포함된다. [1]

관문	무엇을 판단하나	잘못된 단순화
통관·관세	생산지·품목·서류·계약과 예외	“한국 기업이므로 모든 제품은 한국산”
제조업 45X	미국 생산·적격 판매·금지외국기관(PFE) 제한	“미국에 팔면 해외 공장도 공제”
발전사업 48E	투자·가동·국내산 등 프로젝트 요건	“미국 모듈을 사면 자동으로 최대 공제”

45X와 48E는 수혜 주체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세부 기준은 IRS 지침에 따른다. [5] [6] [11]

정책 해석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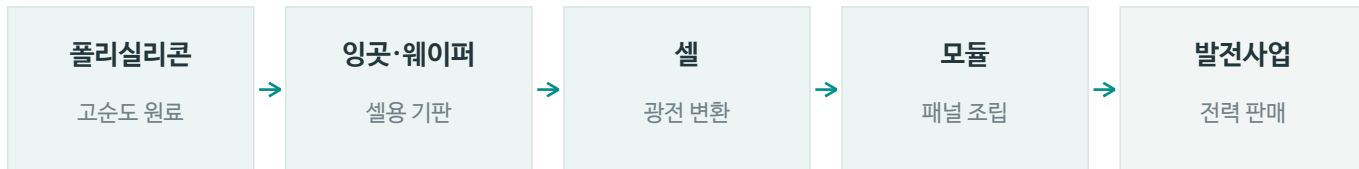
한국 등 일부 원산지의 15% 조항은 추가 종가관세와 일반 관세의 합에 관한 것으로, 모든 반덤핑·상계관세까지 합친 상한이 아니다. 미국 투자계획에 따른 예외 역시 승인·이행 조건이 붙는다. “비중국”이라는 분류만으로 면제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1]



04 / VALUE CHAIN

싼 원료보다, 끊기지 않는 공급망이 비싸진다

공급망의 다섯 단계를 나누면 가격 상승의 수혜와 부담이 동시에 보인다.



제품의 공정 관계를 나타낸 개념도다. 모든 기업이 전 공정을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8]

단계	프리미엄이 남는 경로	빼고 봐야 할 비용
소재·웨이퍼	대체 어려운 원산지·품질을 계약에 반영	전력·원재료·무역비용·수율
셀	현지 적격 물량과 가동 신뢰성을 제공	초기 가동비·수입 투입재·불량
모듈	납기·품질·보증과 조달 패키지 판매	비싼 셀·판가 고정 계약·물류
발전 개발·운영	적기 건설과 PPA·금융을 함께 확보	모듈·EPC·금융·접속 지연

통합 생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외부의 적격 셀·웨이퍼를 매번 사야 하는 조립업체와, 내부에서 생산해 일정과 증빙을 관리하는 업체는 협상력이 다를 수 있다. 통합의 가치는 내부 거래 자체보다 조달 불확실성·중단 위험·고객의 확인 부담을 낮추는 능력에서 생긴다.

통합도 만능은 아니다

공정을 더 보유하면 투자비와 고정비도 커진다. 수율이 낮거나 판매가 늦어지면 외부 조달보다 비쌀 수 있다. 현지화의 성과는 공장 수가 아니라 공정별 양품 출하, 단위원가와 현금 회수로 판단한다.



05 / BUSINESS EXPOSURE — QC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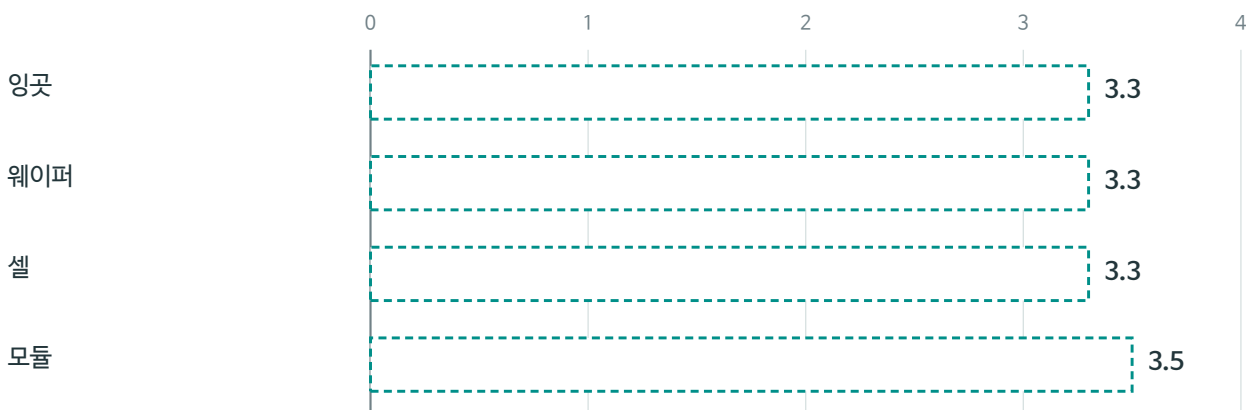
한화솔루션의 차별점은 모듈보다 셀·웨이퍼다

현지 생산의 깊이는 강점 후보지만, 생산 개시와 전면 가동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Qcells는 6월 9일 조지아 카터스빌의 셀 생산 개시를 발표했다. 미국 현지에서 잉곳부터 모듈까지 연결하려는 투자다. 아래는 그 발표의 계획 규모이며, 9월 말 실제 출하량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3]

카터스빌 공정별 계획 생산능력

단위: GW/년 · 회사 계획



발표상 3분기 전면 가동 목표. 같은 소재가 순차 공정을 거치므로 3.3+3.3+3.3GW를 최종 생산량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3]

성장의 근거	이익으로 남는 조건
외부 적격 셀·웨이퍼 의존 완화	내부 공정의 수율·원가가 안정되고 물량이 실제 출하
고객에게 공급 일정·증빙의 확실성 제공	확보한 계약단가가 생산·보증·물류비 증가를 상회
생산 단계별 정책 활용 여지	적격 생산·판매와 통합 부품 규정 등 요건 충족

표는 TradeLens의 사업 평가 기준이다. 그룹의 모든 매출 또는 공제액을 카터스빌 실적으로 귀속하지 않는다. [5] [11]

판단 | 현지 생산의 깊이는 긍정적, 이익 전환은 가동의 문제

공급망의 빈 구간을 미국 안에서 채우는 전략은 단순 조립보다 설득력 있다. 하지만 신규 공정은 초기 비용을 동반한다. 이후 확인할 핵심은 증설 뉴스가 아니라 양품 출하 증가와 공제 전 제조 수익성의 개선이다.



06 / BUSINESS EXPOSURE — OCI

OCI홀딩스는 가격 상승의 양쪽에 서 있다

상류 소재의 판매 기회와 하류 발전사업의 조달비 부담을 나누어 본다.

OCI홀딩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 OCI TerraSus가 생산한다. 비중국 소재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미국 내 생산과 같은 지위는 아니다. 기업의 국적, 공장 소재지, 적용 세제는 각각 다른 판단 단위다. [8]

상류 | OCI TerraSus

폴리실리콘 판매

기회: 고객의 공급망 다변화

관건: 계약단가·물량·원가·통상 조건

하류 | OCI Energy

발전 개발·운영

기회: 사업 실행·전력 판매

관건: 기자재 조달·PPA·금융·일정

실제 하류 사업 사례: 선로퍼 260MW

OCI홀딩스는 9월 3일 미국 선로퍼 프로젝트를 착공을 발표했다. OCI Energy와 Arava Power가 각 50%로 개발하며, 장기 PPA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하고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추진 중인 사업의 사례이지 현재 발전 매출이 아니다. [9]

같은 가격 상승

경제적 전달 경로

폴리실리콘 가격 프리미엄

계약 재가격·실제 판매 물량을 통해 매출에 반영

모듈·설비 조달가격 상승

구매·EPC 계약과 PPA 조건에 따라 개발 마진에 영향

지주회사 연결 성과

사업별 귀속·지분·내부거래·현금 배분을 거쳐 반영

판단 | 비중국의 희소성과 미국산의 혜택은 같지 않다

상류 소재의 사업 기회는 인정하되, 미국 모듈 가격 상승분을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판가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OCI홀딩스는 소재 판매와 발전 개발의 계약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기업이다. 두 효과를 기계적으로 상쇄하거나 합산할 수도 없다.



07 / CREDIT ECONOMICS

제조업자의 7센트와 발전사업자의 10%p는 다르다

같은 정책 패키지라도 받을 권리·계산 기준·현금화 경로가 다르다.

구분	누구의 경제성인가	계산 기준
45X 생산세액공제	적격 부품 생산자	미국 내 생산·적격 판매 물량 × 품목별 단가
48E 투자세액공제	적격 발전설비 투자자	적격 투자액 × 적용 공제율
국내산 요건 보너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48E에서 최대 10%p 추가; 요건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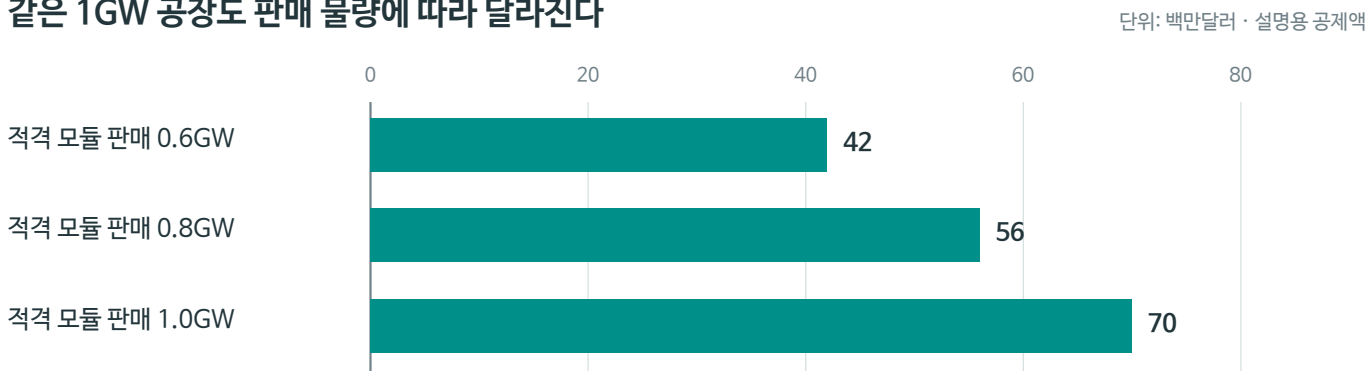
48E는 임금·건설 등 요건과 국내산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제조업체의 공제와 고객의 공제를 동일 매출로 합산하지 않는다. [\[6\]](#) [\[11\]](#)

태양광 주요 부품의 45X 기준 단가

셀	모듈	웨이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0.04/Wdc	\$0.07/Wdc	\$12/m ²	\$3/kg

IRS Form 7207의 품목 단가. 소유·조달 구조에 관한 PFE 제한, 통합 부품 및 판매 요건 등은 별도 적용된다. [\[4\]](#) [\[5\]](#)

같은 1GW 공장도 판매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 공제율 단계 축소 전, 적격 모듈 판매만 계산. 1GW=10억W, 10억W×\$0.07=\$7,000만. 공장능력만으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분석 | 공제는 강력하지만, 제조 손실을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혜택의 존재와 자생적인 원가 경쟁력은 별개다. 공제 전 제조 손익, 공제 인정액, 현금화 시점을 분리해 봐야 한다. 판매가격에 일부 혜택을 넘겨주거나 초기 가동비가 커지면 주주에게 남는 효과는 공제 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08 / MANUFACTURER ECONOMICS

판매가격이 6센트 올라가도 이익은 줄 수 있다

가격 상승분 전체가 아니라, 재가격할 물량과 추가 원가 이후의 차액을 계산한다.

설명용 가정 | 판매 1GW, 가격 상승 \$0.06/W, 추가 원가 \$0.04/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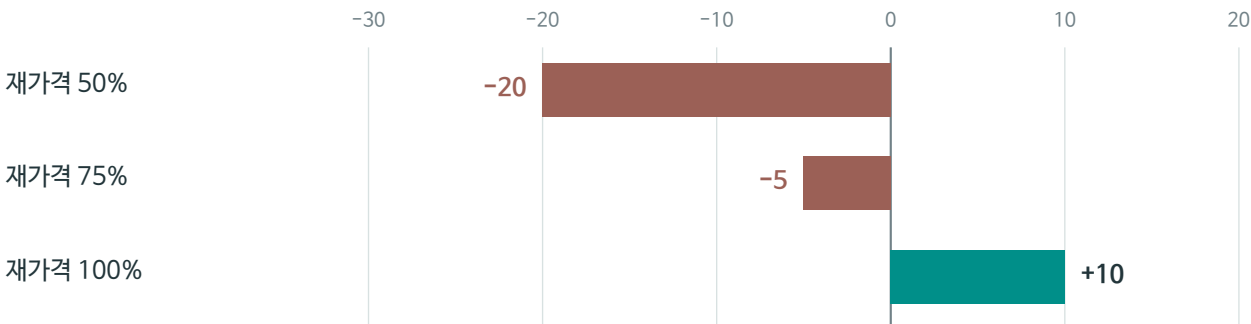
총 판매량은 동일하고, 실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물량의 비율만 달라진다. 추가 원가는 모든 판매 물량에 적용되며 초기 가동 등 추가 고정비는 1,000만달러다. 이익 변화 = $Q \times (\text{재가격 비율} \times \text{가격 상승} - \text{추가 원가}) - \text{추가 고정비}$.

재가격 비율	매출 증가	원가·고정비 증가	이익 변화
50%	30	50	-20
75%	45	50	-5
100%	60	50	+10

단위: 백만달러/년. 세액공제·세금·금융비용·설비투자·재고 변동은 미반영. 특정 회사의 계약·실적을 추정한 모델이 아니다.

동일 물량·동일 원가에서도 계약이 결과를 바꾼다

단위: 백만달러 · 기존 대비 변화



0은 기존 조건 대비 추가 이익이 없는 기준선이다. 음수는 이익 감소, 양수는 증가를 뜻하며 총 영업이익 자체는 아니다.

판단을 바꾸는 숫자 | 손익분기 재가격 비율은 83.3%

이 가정에서 $(0.04 + 0.01) \div 0.06 = 83.3\%$ 다. 가격이 올라가도 고정가격 계약이 많이 남으면 원가 상승만 먼저 맞을 수 있다. 현물 가격보다 계약 갱신률·원가 전가 조항·납품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09 / DEVELOPER ECONOMICS

제조업자의 프리미엄은 발전사업자의 투자비다

전력 판매가격을 다시 정할 수 없다면, 모듈 가격 상승은 사업 마진을 압박한다.

정책이 제조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도 최종 전력 수요가 모든 비용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발전사업자는 더 비싼 장비가 주는 보너스·납기·발전량 이점과 추가 투자비를 비교한다. 싸게 산 모듈보다 적기에 가동하는 프로젝트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계산해야 한다.

설명용 가정 | 100MWdc 프로젝트의 모듈 구매가격 변화

연간 순발전량을 192,720MWh(100MWdc × 8,760시간 × DC 기준 등가 이용률 22%)로 가정한다. 추가 투자비를 25년·연 8%로 연금화해, 이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전력 판매단가 차이만 계산한다.

모듈 추가 가격	추가 투자비	연금화 비용	필요 단가 차이
\$0.03/W	3.0	0.281	1.46
\$0.06/W	6.0	0.562	2.92
\$0.10/W	10.0	0.937	4.86

투자비·연금화 비용: 백만달러, 필요 단가: 달러/MWh. 자본회수계수 약 0.09368. 전체 LCOE·실제 PPA 가격 또는 기업 이익 전망이 아니다.

한계 프로젝트부터 수요가 흔들릴 수 있다

모듈 가격이 \$0.06/W 높아지면 이 모델의 추가 투자비는 600만달러, 회수에 필요한 단가 차이는 약 \$2.92/MWh다. 기존 PPA와 EPC 계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다면 그 차이를 전가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먼저 흡수한다.

분석 | 높은 모듈 가격은 스스로 수요의 상한을 만든다

프로젝트 취소·축소가 늘면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도 약해진다. 따라서 제조 프리미엄의 지속성을 평가할 때는 공장 가동률뿐 아니라 발전사업의 실제 착공·금융조달·상업운전을 함께 봐야 한다.

세금·공제·효율 차이·열화·출력제한·운영비·건설지연·차입 구조는 제외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각 항목의 경제적 효과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10 / POLICY CLOCK & EXECUTION

혜택의 창은 열리지만, 시간은 같은 편이 아니다

수입 규칙의 시행, 발전사업의 가동기한, 제조 공제의 단계 축소를 구분한다.

시점	해당 변화	산업적으로 중요한 질문
2026.12.04	MIP·추가관세 시행 예정 [1]	기존 계약·입항·서류·예외가 조달비를 어떻게 바꾸나
2027.12.31	일부 신규 태양광 설비의 가동기한 [7]	건설·계통·조달 지연 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나
2030 - 2032	태양광 부품 45X 단계 축소 [5]	공제 의존도를 낮출 제조 원가·규모가 확보되나

2027년 기준은 모든 태양광 사업의 일괄 종료일이 아니다

IRS Notice 2025-42는 2026년 7월 4일 이후 착공하는 적용 대상 태양광 설비가 2027년 12월 31일 이후 가동될 때 45Y·48E 종료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전 착공 사업도 해당 요건·연속성 판단이 필요하다. 제조업 45X와는 다른 제도다. [7]

앞당겨진 주문과 늘어난 최종 수요를 구분한다

마감 전에 장비를 확보하려는 주문은 가까운 시기의 물량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요를 미리 당겨온 것이라면 장기 시장 확대와 다르다. 수주잔고가 커지는지뿐 아니라 인도 연도·선금금·취소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Qcells는 9월 22일 수입 제품의 선행 비축에 대응하는 통상 집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 내용만큼 시행 전후의 재고와 집행 방식도 중요해졌다는 회사 측 신호로 읽는다. 개별 수입품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10]

판단 | 단기 조달 압박과 장기 경쟁 심화는 공존할 수 있다

초기에는 적격 물량이 귀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은 현지 증설을 유도한다. 신규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과 프로젝트 수요가 앞당겨진 뒤의 시점이 겹치면 프리미엄이 약해질 수 있다. 영구적인 가격 섬보다 한시적인 공급 재편의 구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1 / VALUE CAPTURE & OUTLOOK

비싼 시장에서, 더 많이 남기는 기업을 구분한다

미국 태양광의 핵심은 시장 성장률보다 정책·생산·계약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종합 판단 | 미국 내 적격 통합 제조의 여건은 우호적이다

상류 공정을 포함해 실제 미국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모델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격성 확보만으로 이익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수율과 가동률, 재가격 계약, 생산·판매량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해외 비중국 소재는 별도의 통상·계약 경로로 평가한다.

관찰 영역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판단을 약화시키는 신호
현지 제조	양품 출하·수율 개선과 원가 안정	설비는 늘지만 판매·수율이 정체
계약의 질	원가 전가·재가격·반복 주문	고정가격 계약에 비용만 반영
현금화	적격 판매·공제·수금의 연속성	재고·매출채권·공제 현금화 지연
최종 수요	PPA·금융·접속·상업운전 진척	가격 상승 뒤 취소·지연 확대
공급 재편	적격 상류 물량이 수요와 함께 증가	증설과 수요 공백이 같은 시기에 도래

위 표는 전망을 점검하는 기준이며 특정 기업에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 사례의 배열도 추천 순위가 아니다.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를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는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제조의 깊이와 가동 성과가 중요하다. OCI홀딩스는 해외 소재의 계약 경제성과 미국 발전사업의 조달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미국 태양광 뉴스라도 이익이 들어오는 경로와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는 다르다.

보고서가 남기는 한 문장

미국에서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보다, 그 시장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가격과 원가 사이의 차액을 끝까지 남기는 능력이 중요하다.

제공 범위: 산업구조·사업 성장성·수익성 분석.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개인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12 / SOURCE REGISTER

주장의 근거를 실제 원문까지 연결한다

본문의 청록색 번호와 아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공식 자료·원 분석으로 이동한다.

01. 미국 백악관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 조정 포고문

2026.08.06 · MIP·추가관세·2026.12.04 시행 예정 · [원문 열기](#) /

02. Anza | Section 232 Solar Tariffs: What Buyers Need to Know

2026.08.10 · 8월 5일 플랫폼 중간값과 정책 반영 추정 · [원문 열기](#) /

03. Qcells | Cartersville 공장 태양광 셀 생산 개시

2026.06.09 · 생산 개시 사실과 3분기 생산능력 목표 · [원문 열기](#) /

04. 미국 IRS | Form 7207: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2025.12 서식 · PDF 1쪽: 태양광 부품별 45X 단가 · [원문 열기](#) /

05. 미국 IRS | Instructions for Form 7207

2025.12 지침 · 미국 생산·판매, PFE, 단계 축소·통합 부품 · [원문 열기](#) /

06. 미국 IRS |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열람 2026.09.29 · 48E 공제 구조·국내산 요건 보너스 · [원문 열기](#) /

07. 미국 IRS | Notice 2025-42: Beginning of Construction

2025 발행 · PDF 1 - 2쪽: 착공·가동 시점과 45Y·48E 종료 조건 · [원문 열기](#) /

08. OCI홀딩스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솔루션

열람 2026.09.29 · OCI TerraSus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사업 · [원문 열기](#) /

09. OCI홀딩스 | 美 텍사스 260MW 태양광 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공식 뉴스룸 2026.09.03 게시 · 착공식 9월 1일 현지 · PPA·PF · [원문 열기](#) /

10. Qcells | 태양광 제품 선행 비축 대응에 관한 입장

2026.09.22 · 통상 집행에 대한 회사 입장문 · [원문 열기](#) /

11. 미국 IRS |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열람 2026.09.29 · 생산·판매 요건 및 공제 청구 구조 · [원문 열기](#) /

정책은 공표문·IRS 지침의 해당 범위를 인용했다. Anza 가격 표는 관측값과 추정을 구분한 분석자료다. 기업 자료는 각사가 발표한 사실·계획으로 사용했다. 출처 [9]는 해당 발표가 수록된 OCI홀딩스 공식 뉴스룸이다.



13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정책의 적용 대상, 회사 계획, TradeLens의 분석과 가정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자료 기준	2026.09.29. 정책은 인용한 공표·지침 기준, 기업별 수치는 해당 발표일의 범위로 표시.
가격·생산 범위	Anza의 8/5 관측값과 정책 반영 추정 분리. 생산능력·가동 목표는 실제 출하량으로 간주하지 않음.
정책 적용	수입 규칙·45X·48E의 수혜 주체와 요건을 구분. 발전사업의 종료 시점은 Notice 2025-42 적용.
가정 모델	8 - 10쪽 물량·단가·비용·재가격 비율·발전량·연금화는 설명용 계산. 특정 기업 실적 전망 아님.
제공 범위	산업·사업 분석에 한정.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개인별 투자자문 미제공.

단위: 1GW=10억W, 1MW=100만W, 1센트=\$0.01.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율 가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원수치로 계산 후 표시 단계에서 반올림했다. 그래프·도식은 재작성했으며 원기관의 승인·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법률·세제의 설명은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작성 안내: 본 보고서는 자료 조사·분석 및 본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기술·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추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